

가정교과 이수여부별 남·여 고등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차이

신 용 해* · 조 재 순**

논산여자고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perceptions of female and male high school students on Home Economics

Shin, Yong-Hae* · Cho, Jae-Soon**

*Non San girls'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between female and male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learned Home Economics and who have never learned.

The number of 400 samples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percentages, t-tests, regressions and χ^2 analyses by SPSS/Wi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e students who have taken Home Economics were more likely than those who have never taken perceived Home Economics as a living science and to be interested in the subject.

There were sexual differenc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learned the subject in favorite units, increases in interests,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etc.

Sex and the level of participating household work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the subject of high school stud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과 교과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익혀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교육부, 1998)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만을 대상으로 교육되어 왔다. 가정과 교육은 교육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실천교과로서 체험학습을 강조한다. 현대사회는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더구나 미래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해 가족형태가 더욱 다양화되어 핵가족과 독신가정 및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미래 가족은 기혼여성의 직업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정생활을 부부공동으로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가정교과는 남·여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교과라고 인식되어 1995년부터 실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필수로 이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남학생에게는 가정교과를 이수하게 한 적이 없었으나 2002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남학생도 기술교과와 합해진 기술·가정교과를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가정교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수 연구가 가정교과를 이수한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남학생만을 대상으로(신현자, 1991; 온성숙, 1992; 두경자, 1997)하거나 남·여학생을 비교(김승현, 1995; 이준임, 1996; 최동숙, 1996; 조현주, 1997; 신동순 외, 1997)한 것이다.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 대신 기술·가정을 선택해서 남·여학생이 함께 이수한 경우(신현자, 1991; 온성숙, 1992)와 1995년부터 가정교과가 중학교 남·여학생에게 필수가 된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중에 연구된(김승현, 1995; 이준임, 1996;

최동숙, 1996; 조현주, 1997; 두경자, 1997; 신동순 외, 1997)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중학교 남·여학생간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김승현, 1995; 이준임, 1996; 최동숙, 1996; 조현주, 1997; 신동순 외, 1997)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남·여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습내용은 정신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남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정을 배운 남학생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가정교과가 고등학교에서 남·여 공수가 될 것을 대비해서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남학생들의 인식을 미리 알아보고 남·여고등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남·여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 이수 여부와 남·여 성별에 따라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교 남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가정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2)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교 여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여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가정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3)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여 고등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정교과 이

수여부 및 성별이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가정교과 성격, 가정교과 및 내용에 대한 학습 흥미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습내용, 가정생활 참여도,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중학교 남·여학생은 가정교과 성격을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생활교육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여성의 덕성을 배우는 교양과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학년,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남학생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교과로, 여학생은 건전한 생활 이념과 인간을 형성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 1985; 이연희, 1986; 문옥현, 1986; 유상희, 1992; 신동순 외, 1997).

가정교과 및 내용에 대한 학습 흥미도에서는 가정교과를 배운 남자 중학생(두경자, 1997) 가운데 42.2%의 학생이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5.2%는 흥미가 없다고 하여 가정교과 이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흥미도와 이수 희망 기간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서 가정교과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가정교과 이수 기간을 연장하기를 희망했고, 비교적 흥미를 느끼는 학생은 2년 이상의 교육을 원했으며 흥미가 없는 학생은 중학교 과정 중 1년 동안만 이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가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문옥현, 1986; 이연희, 1986; 김순애, 1990; 온성숙, 1992; 오현주, 1996; 이준임, 1996) 남·여중학생들은 약간 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생활에 대부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고생(이연희, 1986; 고현숙, 1988)의 80%는 학생들이 가정교과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온성숙, 1992)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남중생은 청소년기의 영양, 건강과 식생활, 가족과 가족생활, 식품과 위생, 옷차림, 음식 만들기, 주거 환경과 설비, 주거

환경의 미화, 가정생활과 기술, 식품과 조리 순이라고 하였다.

가정생활 참여도에 대해서는 가정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성별, 학년별,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이,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년별로는 저학년이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았다. 이준임(1996)은 중학생들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는 1주일에 1회 이상(79.2%) 도와주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23.4%)보다 여학생(31.2%)이 더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최동숙, 1996)는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할 정도이며, 성별과 학년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았으며 중고 남·여학생 모두 2학년보다 1학년에서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관계나 가정생활에 대한 호응도가 높기 때문으로 이해되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춘기 이후 심리적 변화나 입시 위주의 학업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의 가정생활 참여도가 더 높아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은(김영, 1985; 이은정, 1992; 이금남, 1992; 김계순, 1993) 남·여학생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모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서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학생도 31.5~3.7%나 있었다. 가정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온성숙, 1989; 신현자, 1991; 유상희, 1992)연구에서는 가정교과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이수한 학생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온성숙, 1989).

한편 중학교 남·여학생간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김승현, 1995; 이준임, 1996; 최동숙, 1996; 조현주, 1997; 신동순 외, 1997)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남·여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습내용은 정신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를 학습한 후에 관심을 갖는 내용(김근자, 1985; 김연숙, 1994; 오현주, 1997)에 있어서는 남·여학생 모두 식생활 영역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가정교과 이수여부 변수 외에 가사일을 돕는 정도와 가사일의 참여수에 따라서 가정교과에 대한 남·여고등학생의 인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충남 부여군에 소재하고 있는 1개교의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과 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교의 남·여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여학생 각각 100명씩 200명과 1학년 여학생 100명으로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모두 중학교에서 가정교과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여학생과 배우고 있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가정교과를 2, 3학년에서 배울 것이나 아직 배우고 있지 않은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구성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가정교과 이수학생과 가정교과 비이수 학생용 2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생에게 일반적 사항 9문항, 가정교과에 관한 일반적 인식 11문항을 묻고 이수 학생에게는 가정교과 내용에 관한 인식 4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교과내용에 대한 인식은 5단계 리커트형 척도이며“매우 적합하다”에 5점부터“매우 부적합하다”에 1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채점 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 기간은 1998년 6월 17일부터 7월 3일

까지 16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편의 표집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정교과 혹은 타교과 교사에게 부탁하여 설문지 내용과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회수된 자료 440부 중에서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0부를 제외한 4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가정교과 이수여부별로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단원 내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검증을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가정교과 이수·비이수 남학생 100명씩 200명(50%), 가정교과 이수·비이수 여학생 100명씩 200명(50%)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가족수는 4~5명(56.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7명 이상(23%), 2~3명(20.5%) 순이었으며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71%로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아파트(11.3%), 연립주택(7.5%) 순으로 나타나 이수여부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일을 하는 주 가사원은 어머니나 다른 한 사람이 도맡아 한다(48.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족원이 모두 함께 한다(27.5%), 어른들이 주로 한다(19.2%), 자녀들이 주로 한다(5.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가정의, 이수여부에 따라서는 비이수 학생 가정의 가사일을 주로 어머니나 다른 한 사람이 도맡아 하는 경향으로 이수여부별,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사일 참여수는 평균 2~3가지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1~2가지(87.3%), 여학생은 2~3가지(71.1%)를 하고 있어서 여학생이 더 많은 종류의 가사일을 돕고 있었으나 이수 남·여학생간, 비이수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는 학생들이 집안에서 하는 가사일의 종류를 모두 적도록 하여 빈도를 낸 것으로 주로 하는

가사일의 종류는 집안청소, 설거지, 빨래하기이며
 성별간에 가사일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은 여학생보다 집안청소와 심부름을 더 많이 한 반

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설거지와 빨래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별 및 가정교과 이수여부별 일반적 특성차이

단위=%

일 반 사 항	계 (%)	남학생(N=200)			여학생(N=200)			이수학생(N=200)			비이수학생(N=200)		
		이수	비이수	계	이수	비이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가족수													
2-3	20.5	24.0	24.0	24.0	16.0	18.0	17.0	24.0	16.0	20.0	24.0	18.0	21.0
4-5	56.5	58.0	64.0	61.0	55.0	49.0	52.0	58.0	55.0	56.5	64.0	49.0	56.5
6-7이상	23.0	18.0	12.0	15.0	29.0	33.0	31.0	18.0	29.0	23.5	12.0	33.0	22.5
	100	$\chi^2=1.495$			$\chi^2=.822$			$\chi^2=5.480$			$\chi^2=13.563^{**}$		
주택유형													
단독주택	71.0	71.0	79.0	75.0	74.0	60.0	67.0	71.0	74.0	72.5	79.0	60.0	69.5
아파트	11.3	14.0	9.0	11.5	8.0	14.0	11.0	14.0	8.0	11.0	9.0	14.0	11.5
연립주택	7.5	4.0	5.0	4.5	9.0	12.0	10.5	4.0	8.0	6.0	5.0	12.0	8.5
기타	10.2	11.0	7.0	9.0	9.0	14.0	11.5	11.0	9.0	10.0	7.0	14.0	11.5
	100	$\chi^2=2.514$			$\chi^2=4.615$			$\chi^2=3.822$			$\chi^2=8.900^*$		
추가사원													
어머니나다른한사람	48.3	45.0	71.0	58.0	36.0	41.0	38.5	45.0	36.0	40.5	71.0	41.0	56.0
어른들이 주로	19.2	22.0	16.0	19.0	22.0	17.0	19.5	16.0	22.0	19.0	16.0	17.0	16.5
자녀들이 주로	5.0	4.0	1.0	2.5	8.0	7.0	7.5	1.0	8.0	4.5	1.0	7.0	4.0
가족원이 모두 함께	27.5	29.0	12.0	20.5	34.0	35.0	34.5	29.0	34.0	31.5	12.0	35.0	23.5
	100	$\chi^2=15.624^{***}$			$\chi^2=1.047$			$\chi^2=2.730$			$\chi^2=23.821^{***}$		
가사일 참여수													
1	35.0	50.0	55.1	52.6	15.5	19.2	17.4	50.0	15.5	32.7	55.1	19.2	37.1
2	37.8	35.6	33.7	34.7	42.3	39.4	40.9	35.6	42.3	38.9	33.7	39.4	36.6
3	21.0	12.2	11.2	11.7	34.0	26.3	30.2	12.2	34.0	23.1	11.2	26.3	18.7
4이상	6.2	2.2	.0	1.0	8.2	15.2	11.2	2.2	8.2	5.1	.0	15.2	7.6
	100	$\chi^2=2.277$			$\chi^2=3.461$			$\chi^2=30.490^{***}$			$\chi^2=36.09^{***}$		

*** P < .001 ** P < .01 * P < .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수에 있어서 절반이
 상이 4~5명인 가정이었으며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살고 있었다. 가정에서 가사일은 어머니
 나 다른 한 사람도 맡아 하는 편이나 여학생 가
 정에서는 34.5%가 가족원이 모두 함께 가사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수여부별로, 비이수학생간에는 남
 · 여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돕고 있
 는 가사일은 1~3가지로 남학생은 1~2가지, 여학
 생은 2~3가지이며 성별간 가사일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표 2〉 가정에서 하는 가사일 종류

단위=N(%)

가사일의 종류	전체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수학생	비이수학생
집안청소	279(37.2)	120(41.8)	159(34.3)	146(38.8)	133(35.6)
설거지	206(27.4)	48(16.7)	158(34.0)	107(28.5)	98(26.2)
빨래하기	111(14.8)	30(10.5)	81(17.5)	59(15.7)	52(13.9)
식사준비	69 (9.2)	25 (8.7)	44 (9.5)	30 (8.0)	39(10.5)
심부름	23 (3.1)	21 (7.3)	2 (0.4)	10 (2.7)	13 (3.4)
기 타	63 (8.3)	43(15.0)	20 (4.3)	24 (6.3)	39(10.4)

이러한 몇몇 특성은 남학생간에는 이수여부별로, 비이수 학생간에는 남·여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결과에 이수여부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이들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가정교과에 대한 고등학생의 일반적 인식

1) 가정교과 성격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 성격에 대해 85.5%의 학생이 가정교과를 생활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선행연구(김영, 1985)에서 조사 대상자의 76.5%가 가정교과를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생활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것이다. 이를 가정교과 이수여부별로 보면 남학생 가운데서는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생활교육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여학생은 이수여부($p = .342$)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수한 학생에서도 성별($p = .47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은 가정교과를 이수한 후 가정교과의 성격을 더 잘 파악하지만 여학생은 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를 아직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에서 이미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수여부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남·여 구별없이 대부분 가정교과의 성격을 생활교육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남학생이 가정교과를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한 고등학

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표 3). 전체 대상자의 91.8%가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배우야 한다고 하여 고등학생 대다수가 남학생의 가정과 이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비이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가운데 김영(1985)은 73.9%, 이연희(1986)는 82.6%, 이금남(1992)은 82.2%가 남학생도 배우야 한다고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가운데 이수여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 가운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

가정교과를 좋아하는 정도에서는 가정교과를 좋아하는 편이다가 35.2%, 매우 좋아한다 11.8%로 47.0%가 좋아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과를 이수한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흥미도를 조사한 두경자(1997) 보고(42.2%)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수여부별 흥미도 차이를 보면 남학생 가운데는 이수한 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학생보다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이수한 학생보다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고 있어서 남학생($p = .003$)과 여학생간($p = .000$)에 이수여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수한 학생들 가운데는 남·여별($p = .535$)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은 가정교과를 처음 배우면서 교과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교과를 이수한 여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여학생보다 흥미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가

〈표 3〉 가정교과에 대한 고등학생의 일반적 인식

단위=%

구분	교과성격과 인식 및 흥미도	계	남학생		여학생		이수학생	
			이수	비이수	이수	비이수	남학생	여학생
교과성격	전인교육	6.7	4.0	13.0	3.0	7.0	4.0	3.0
	생활교육	85.5	89.0	80.0	88.0	85.0	89.0	88.0
	기술교육	2.3	3.0	2.0	1.0	3.0	3.0	1.0
	진로교육	5.5	4.0	5.0	8.0	5.0	4.0	8.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8.044$ P= .045		$\chi^2=3.345$ P= .342		$\chi^2=2.482$ P= .479	
인식 및 흥미도	남학생도 꼭 배워야 한다	29.8	21.0	15.0	38.0	45.0	21.0	38.0
	남학생도 배우면 좋다	62.0	71.0	66.0	60.0	51.0	71.0	60.0
	남학생은 배우지 않아도 괜찮거나 배우지 않아야 한다	8.2	8.0	19.0	2.0	4.0	8.0	2.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5.664$ P= .059		$\chi^2=1.987$ P= .370		$\chi^2=9.422$ P= .009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	매우 좋아하는 교과이다	11.8	9.0	8.0	7.0	23.0	9.0	7.0
	좋아하는 교과인 편이다	35.2	41.0	18.0	36.0	46.0	41.0	36.0
	보통으로 좋아한다	42.3	39.0	53.0	49.0	28.0	39.0	49.0
	좋아하지 않는 교과인 편이거나 매우 좋아하지 않는 교과이다	10.7	11.0	21.0	8.0	3.0	11.0	8.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14.280$ P= .003		$\chi^2=17.753$ P= .000		$\chi^2=2.185$ P= .535

정교과 내용에 대한 기대와 학습내용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상세히 밝히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가정교과 이수 남·여학생의 가정교과 단원 내용에 대한 인식

1) 가정교과 내용 중 가장 좋아하는 단원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원

가정교과 내용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단원은 식생활(60.0%)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생활(12.5%), 아동발달(11.5%), 가정경영(6%), 주생활(4.5%), 의생활(4%), 소비생활(1.5%)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족생활, 가정경영, 주생활 단원을 더 좋아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생활, 아동발달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

실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단원은 식생활(41.5%)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족생활(27%), 소비생활(9.5%), 주생활(8.5%), 아동발달(5.5%), 가정경영(4.5%), 의생활(3.5%) 순이었다. 이 결과는 좋아하는 단원에 대한 성별 차이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생활, 아동발달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2) 가정과 학습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이수한 학생의 55.0%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남·여학생간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이연희(1986)의 82.2%, 고현숙(1988)의 85.9%보다 낮은 것이다.

가정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별 차이없이 배운 것을 실생활에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가(52.4%)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22.6%), 수업 내용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13.7%),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남·여학생들은 대다수가 학습내용을 생활에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으며 수업내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교과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고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할 것이 요구된다.

3) 가정교과를 배운 후 관심변화

가정교과를 학습한 후 관심 변화 정도는 관심이 많아진 편이다 32.0%, 매우 많아졌다가 2%로 34.0%가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는 관심이 적어진 편이거나 관심이 매우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p = .1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정교과를 학습한 학생들 중 60% 이상은 가정교과를 배우고 난 후에 교과에 대한 관심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관심변화가 적어 교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학습지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4) 가정교과 학습 만족도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스럽다가 38.0%, 매우 만족한다가 3.5%로 41.5%가 만족하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55.0%가, 여학생은 28.0%가 만족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여학생간($p = .000$)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46.5%이며, 불만족스럽다 7.5%, 매우 불만족한다 4.5%로 12%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불과 2%가 불만족하고 있었지만 여학생은 22%가 불만족하고 있어 여학생의 불만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차기 교과서 개발 및 교수 학습에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관심과 성격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가정교과가 성인이 되어 가정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가정교과가 성인이 되어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가 26.0%, 매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13.5%로 39.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2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반면 여학생은 56%가 도움이 될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가 가정생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별간($p = .000$)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될 것이다(34.5%)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다(9.5%)가 44%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3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가정교과가 생활교육이면서도 미래의 가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학생이 44%나 되고 더구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가정교과 내용 구성에 있어서 가정교과 성격인 생활교육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4.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의 영향력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성별, 가정교과 이수여부, 주택유형, 가사일을 돕는 정도, 가사일 참여수를 선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0.7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는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한 인식과 교과 내용에 대한 인식은 가정교과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 가정생활에 도움정도, 가정교과 학습내용 만족은 이수학생만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표 5).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한 인식은 관련변수 가운데 성별 변수($\beta = .298$)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정교과 이수여부, 주택유형,

(표 4)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의 가정교과 단원 내용에 대한 인식

단위=%

가정교과 단원 내용에 대한 인식		이 수 학 생		계
		남 학 생	여 학 생	
가정교과 내용 중 가장 좋아하는 단원	의생활	3.0	5.0	4.0
	식생활	53.0	67.0	60.0
	주생활	6.0	3.0	4.5
	가족생활	21.0	4.0	12.5
	가정경영	9.0	3.0	6.0
	아동발달	6.0	17.0	11.5
	소비생활	2.0	1.0	1.5
계		100	100	100
		$\chi^2=23.288$ P= .001		
가정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실생활 도움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5.0	15.0	10.0
	도움이 되는 편이다	50.0	40.0	45.0
	보통이다	38.0	40.0	39.0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0	5.0	6.0
	계	100	100	100
		$\chi^2=6.496$ P= .090		
가정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수업내용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19.0	8.3	13.7
	수업내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28.6	16.7	22.6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14.3	8.3	11.3
	배운 것을 생활에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	38.1	66.7	52.4
	계	100	100	100
		$\chi^2=3.686$ P= .450		
실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단원	의생활	3.0	4.0	3.5
	식생활	34.0	49.0	41.5
	주생활	12.0	5.0	8.5
	가족생활	30.0	24.0	27.0
	가정경영	5.0	4.0	4.5
	아동발달	1.0	10.0	5.5
	소비생활	15.0	4.0	9.5
계		100	100	100
		$\chi^2=20.246$ P= .003		
가정교과를 배운 후 관심 변화	관심이 많아진 편이거나 매우 많아졌다	40.0	28.0	34.0
	보통이다	56.0	70.0	63.0
	관심이 적어진 편이거나 매우 적어졌다	4.0	2.0	3.0
	계	100	100	100
		$\chi^2=4.340$ P= .114		
가정교과가 성인이 되어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정도	매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9.0	18.0	13.5
	도움이 될 것이다	14.0	38.0	26.0
	보통이다	19.0	14.0	16.5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46.0	23.0	34.5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다	12.0	7.0	9.5
	계	100	100	100
		$\chi^2=23.817$ P= .000		
가정교과 학습내용의 만족	만족스럽거나 매우 만족한다	55.0	28.0	41.5
	보통이다	43.0	50.0	46.5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한다	2.0	22.0	12.0
	계	100	100	100
		$\chi^2=25.977$ P= .000		

(표 5)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한 견해		가정교과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B	β	B	β	B	β
성별☆	.369	.298***	-.312	-.174***	-.231	-.147**
가정교과 이수여부☆☆	-4.88	-.039	-.117	-.065	-.239	-.152**
주택유형☆☆☆	4.743	.035	3.910	.020	-.102	-.069
가사일 돕는 정도	-6.67	-.096	.286	.286***	.190	.216***
가사일 참여수	4.329	.064	6.909	.007	2.606	.031
	R ² = .096 F = 7.867***		R ² = .132 F = 11.248***		R ² = .115 F = 9.609***	
독립변인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 변화		가정생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교과 학습 내용 만족 정도	
	B	β	B	β	B	β
성별☆	.158	.129*	-.672	-.272***	.718	.401***
주택유형☆☆☆	-5.27	-.038	9.817	.035	-.166	-.083
가사일 돕는 정도	.182	.265***	-1.05	-.008	9.24	.092
가사일 참여수	3.876	-.063	9.989	.081	6.81	.076
	R ² = .087 F = 4.767***		R ² = .099 F = 5.365***		R ² = .155 F = 8.957***	

☆성별은 남학생 1, 여학생 0

☆☆가정교과 이수여부는 이수 1, 비이수 0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1, 비단독주택 0

*** P < .001 ** P < .01 * P < .05

가사일을 돕는 정도, 가사일의 참여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교과 흥미도는 성별($\beta = -.174$)과 가사일을 돕는 정도($\beta = .286$)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가사일을 많이 돕는 학생일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성별($\beta = -.147$), 가정교과 이수여부($\beta = -.152$), 가사일을 돕는 정도($\beta = .216$)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일을 돕는 정도가 많은 가정교과 비이수 여학생이 가정교과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

도는 성별($\beta = .129$)과 가사일을 돕는 정도($\beta = .265$)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이, 가사일을 많이 돕는 학생이 가정교과에 관심이 높았다. 가정생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beta = .272$)는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교과가 가정생활 이해에 더 도움이 되고 있었다. 가정교과 학습내용 만족정도에서도 성별변수($\beta = .401$)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에 대한 견해,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정도,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정교과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생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사일을 돕는 정도에 따라서는 가사일을 많이 도울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정도, 가정교과 학습내용 만족정도가 더 높아 학생이 가사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정교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여학생의 가정교과 이수여부별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될 가정교과 남·여 공통이수시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를 배우고 있는 남·여 고등학생과 배우고 있지 않은 남·여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여고등학생의 85.5%가 가정교과의 성격을 생활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은 이수여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은 가정교과를 배우면서 교과에 대한 인식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교과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91.8%의 남·여고등학생이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배우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학생 중에는 가정교과 이수 남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그리고 가정교과 이수 학생 중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교과 흥미도는 남학생 가운데는 가정교과를 이수한 남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가운데는 이수여학생이 비이수 여학생보다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가운데는 이수여부별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은 가정교과를 처음 배우면서 교과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교과를 이수한 여학생이 이수하지 않은 여학생보다 흥미도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기대와 학습내용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상세히 밝히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가정교과를 이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교과 단원 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단원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교과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소수의 학생은 배운 것을 생활에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생활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단원 역시 남·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좋아하는 단원에 대한 성별 차이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식생활, 아동발달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가정교과를 배우기 전보다 배운 후 교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여학생보다 처음 배우는 남학생이 관심이 더 높아졌으나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가정교과의 배운 내용이 성인이 되어 가정생활을 이해하는데 대체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학생의 기대가 남학생보다 더 높아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 단원에 대한 인식이 남·여학생간에 차이가 있어 좋아하는 단원이 다르고 여학생은 미래 가정생활 이해에 남학생보다 가정교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으나 남학생보다 교과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르치기 보다는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흥미, 관심,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지도해야 하며 연구자의 차기 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교수 학습지도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에서는 성별과 가사일을 돕는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가정교과 이수 필요도,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정도, 가정교과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가정교과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생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가사일을 돕는 정도에 따라서는 가사일을 많이 도울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흥미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가정교과에 대한 관심정도, 가정교과 학습내용 만족정도가 더 높아 학생이 가사일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가정교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생활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실생활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실습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적용되기 전에 가정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남학생을 전국적으로 선정하여 성별 및 지역에 따라 가정교과와 주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 아울러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의 요구도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새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선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교수 학습지도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현숙(1989).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내용의 활용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교육과정.
- 김근자(1985).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순(1993). 제6차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요구도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1994). 여고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학습태도 및 학습내용의 활용.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1990). 가정과 학습내용의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1995). 제6차 중학교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와 학습 만족도 및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1985).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남·여 공통 이수를 위한 방향모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경자(1997). 중학교 남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15.
- 문옥현(1986).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순·김상희·오화자·정효숙·정혜경(1997). 중학교 남녀 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71-82.
- 신현자(1991). 가정교과 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상희(1992).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홍성야(1997).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성숙(1992).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남(1993).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과 영역별 필요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1997). 가정과 교수법. 신광출판사.
- 이연희(1986).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가정과 교육의 목표 달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임(1996).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학습내용 흥미도와 실생활 적용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주(1992). 중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숙(1996). 중·고등학생의 가정생활 참여도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15-28.